

“다시 보는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학”

김정우*

들어가는 말: 다시 보는 알레고리

얀 마르텔(Yann Martel)의 소설 *Life of Pi*는 주인공 파이의 태평양 조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파이는 부모와 함께 인도 고향 동물원의 짐승들을 캐나다 동물원으로 옮기는 과정에 조난을 당하며 구명보트에 갇힌 채 살아 남은 얼룩말과 오랑우탄과 하이에나와 뱀갈 산 호랑이와 함께 한 270여 일 동안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끌어간다. 그러나 찌므썸(Tsimtsum) 호의 파선 원인을 찾던 일본 회사의 직원들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어 하자, 마지막에 가서 “당신은 별로 놀랍지 않은 이야기를 원한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상식에 일치하는 것이다. 더 높거나(higher) 멀리 가거나(further) 다르지(different) 않은 이야기이다. 당신은 텅텅한 이야기(flat story), 고정된 이야기(immobile story), 건조한 사실성(dry, yeastless factuality)을 원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어머니, 선원, 요리사, 그리고 자신이 구조된 이야기를 한다. 영화에서는 파이가 대담자에게 이 두 가지 버전(version)을 제시하면서, “당신은 어느 이야기가 더 좋으냐?”고 묻는다. 대담자는 짐승과 함께 한 이야기가 사실적인 이야기보다 더 좋다고 대답한다. 소설에서는 얼룩말이 선원으로, 오랑우탄이 어머니로, 하이에나가 요리사로, 그리고 호랑이는 파이에 대한 알레고리로 짝을 이룬다. 알레고리는 여전히 살아 있다.

성서학에서 알레고리와 알레고리 해석은 500여 년 전 종교개혁으로 파문(anathema)을 받았고,¹⁾ 20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역사비평학으로 완전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히 매장당했다.²⁾ 따라서 이제 와서 알레고리와 그 해석법의 판도라 상자를 다시 여는 것은 시대착오일 뿐 아니라, 지난 수 세기 동안 확립한 소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해석의 기초를 허물려는 시도로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알레고리는 고대 그리스의 『이솝 이야기』로부터 현대의 C. S. 루이스(Lewis)에³⁾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도덕적인 이야기의 장르로 사용되고 있으며, 알레고리적 해석법도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와 유대교의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및 신약성경과 초대 교회와 중세 교회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한국교회에서도 초대교회로부터⁴⁾ 현재까지 알레고리적 해석은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⁵⁾ 끊임 없이 시도되고 있다.⁶⁾ 따라서 우리는 먼저 알레고리적 해석을 버림으로써

- 1) 마틴 루터는 “내가 수도사였을 때 나는 알레고리의 도사(expert)였다. 나는 모든 것을 알레고리화 했다”고 말했다. 1517년 로마교회와 단절한 이후에는 “하나의 단순 명료한 의미”(one simple solid sense)를 추구하게 되었다. M. Grant, *A Short Histor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London: SCMPress, 1984), 94. 참조 『성서해석의 역사』 이상훈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을 참조하라.
- 2) 게블러(J. P. Gabler) 이후 성서신학의 초창기부터 성경의 역사적 해석은 ‘교부들, 알레고리주의자들(allegorists), 신비주의자들의 성경의 의미에 대한 곡해(distortion)’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시도되어야 할 것을 바우어(G. L. Bauer)는 명시하였다. G. L. Bauer, *Entwurf einer Hermeneutik des Alten und Neuen Testaments* (Leipzig: Weygand, 1799), 99; B. C. Ollenburger, “Old Testament Theology before 1933,” C. Ollenburger, ed., *Old Testament Theology: Flowering and Future* (Winona Lake: Eisenbraun, 2004), 5.
- 3) C. S. Lewis, *The Allegory of Love: A Study in Medieval Tradition* (New York: Oxford/Galaxy, 1936[reprint1958])을 보라.
- 4) 초기 한국교회의 알레고리 해석에 대해서는 김정우, “평양대부흥운동의 성경 해석-통전적 융합의 해석학,” 『Canon&Culture』 1:2 (2007), 75-111, 특히 91-93.
- 5) 최근에 유행하는 ‘신판(新版) 알레고리’로서 주님의 이름인 신성문자(YHWH)에서 첫 요드는 ‘손’(야드), 둘째 헤는 ‘창문, 혹은 보다’, 셋째 바브는 ‘못’을 상징하여, 주님의 이름은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를 상징한다고 한다([http:// youtube/858kt8cKjtU](http://youtube/858kt8cKjtU)).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히브리어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도록 가르친다(<http://birdnamoo.com>).
- 6) 박창환, “구원사의 알레고리-마태 22:1-14,” 『성경연구』 131 (2005), 14-27. 이상훈, “포도나무의 알레고리,” 『기독교사상』 10:3 (1966), 113-117. 양신혜, “칼뱅의 영적 해석-문자적 의미와 알레고리적 해석의 긴장 사이에서,” 『장신논단』 38 (2010), 119-139. 서정열, “나다니엘 호손의 <목사의 검은 베일>의 베일 벗기기

알레고리도 함께 버린 것은 아닌지 물어 보아야 한다. 또한 알레고리적 해석을 지양(止揚)함에 있어서 교회와 신학은 어떤 점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게 되었는지 좀 더 정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아이를 목욕물과 함께 버리는 우(愚)를 범(犯)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알레고리와 알레고리 해석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설교자들과 신학생들은 혹시 자신의 성경해석이 ‘알레고리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결과적으로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해석 전반에 대해 위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성서비평학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축귀(逐鬼)하듯 내어 쫓은 이후, 우리의 성경해석은 점점 다중적 의미(polysemy)와 계시의 상징성을 잃고(anti-anagogical meaning), 교회는 실천에서 알레고리적 해석이 원래 목표하던 말씀의 도덕적 차원(Moralis)을 상실하며, 설교자들은 은유의 세계에 눈을 감고 알레고리를 결국 예화로 대체하는 부작용이 함께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옛날의 알레고리적 해석 자체가 지니고 있었던 근본적인 한계는 직면해야 하면서도, 성경해석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 시점에서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현대적 맥락에서 다시 시도함으로써, 알레고리와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1. 비유법과 비유적 해석학(Figural hermeneutics)

알레고리에 대한 우리의 토론은 먼저 비유법에 대한 전체적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알레고리는⁷⁾ 어원적으로 “원래 말한 것

-알레고리와 상징과 역사 읽기,” 『신학과 문화』 14 (2005), 325ff. 엄진섭, “루터의 알레고리 비판,” 『신학과 신앙』 14 (2003), 167-208. 최홍진, “알레고리적 성서해석 방법의 가능성,” 『신학이해』 17 (1999), 334-357.

7) 어원적으로 볼 때 ‘알레고리’(allegory)는 헬라어 ‘알레고리아’(al lhgoria)를 음역한 것으로 그 동사형 ‘알레그레오’(al lhgorew)는 ‘다른 (것)(al loj)과 ‘말하다’(agoreuw)를 합성하여 ‘달리 해석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

과는 다른 어떤 것을 내포하다, 달리 해석하다”(Liddell-Scott), 혹은 “유추(analogy)나 비슷한 것(likeness)을 사용하여 다른 것을 표현한다”(BDAG)는 뜻을 갖고 있으므로, 일종의 비유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비유법 역시 “하고자 하는 말을 참신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일부러 통상적인 어법에서 벗어나게 사용하는 장식적인 말이나 표현 방식”(영어학사전), 혹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방식”이므로(표준국어대사전), 알레고리는 이 큰 범주 안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학자들은 비유법을 크게 문법적이고 수사적인 ‘말의 비유법’(figure of speech)과 어휘와 표현과 연관된 ‘생각의 비유법’(figure of thought)으로 나눈다. 아소스(Arthos)는 후자를 ‘비유’(比喩, trope)라는 범주 안에 “원래의 의미와 다른 뜻으로 표현하는 어휘(words)나 구(phrases)로서, 환유, 은유, 직유, 아이러니”와,⁸⁾ 문장(sentences)의 차원에서 이야기의 체계(scheme)를 이루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알레고리, 비유(parable), 예표(typology), 아이러니를⁹⁾ 제시한다.¹⁰⁾ 우리는 아소스의 범주를 기본적으로 따르면서, 비유법의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알레고리의 위치를 살피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1.1. 환유(換喩, metonymy)

8) J. Arthos, “Figure of Speech,” A. Preminger et. al. ed.,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273.

9) 여기서 ‘아이러니’가 겹치는 것은 단어나 구(句) 차원의 아이러니는 예로서, 사고를 친 사람에게 ‘큰 일 했다’(great job)고 말하는 것이며, 이야기(혹은 敍事物)의 아이러니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처럼 실체는 ‘운수 나쁜 날’을 가리킨다. 성경에서는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모르드개를 달아 죽이려고 하던 장대에 자신이 달려 죽는 이야기를 들 수 있다.

10) Arthos, “Trope,”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870. 위키피디아 역시 비유/문체(trope)의 예로서 “과장법(hyperbole), 아이러니, 은유, 환유, 직유”를 들고, 그 유형(types)으로 ‘알레고리’를 들고 있다.

가장 단순한 비유법인 환유(換喻, metonymy)는 어원적으로¹¹⁾ “한 사물을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어떤 전형적인 명칭으로 부르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¹²⁾ 환유란 기본적으로 작은 일부를 통하여 전체를 가리키는 기법이며,¹³⁾ 그 상관어인 제유(提喻, synecdoche)는 전체로 부분을 말한다.¹⁴⁾ 기본적으로 알레고리는 명백하게 드러난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더 깊은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근본적인 성격에 있어서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가리키는 환유와 제유와는 구별된다.

1.2. 직유(直喻, simile)

직유는 어떤 것을 묘사함에 있어서 “비교와 대비의 대상을 명시하면서, 유사성과 비유사성을 전제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으로 비교되는 것을 명확하게, 혹은 새롭게 표현하는 것이다(영어학사전). 이 때 “표현하는 대상을 ‘원관념’(tenor)이라고 하며, 비교하는 대상을 ‘보조 관념’(vehicle)이라고 부른다.”¹⁵⁾ 직유는 비교하는 대상의 성격에 따라, 비교

-
- 11) 환유의 영어(metonymy)는 헬라어(Metwnumia)에서 나왔으며 어근으로 볼 때 ‘이름’(onoma)과 ‘바꾸다’(meta)가 합성된 단어이다.
- 12) E. H. Caird, *The Language and Imagery of the Bible* (Philadelphia: Westminster, 1981), 136.
- 13) 가장 일반적인 환유로서 청와대나 백악관이 정부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성경에서 ‘칼’은 ‘전쟁’(출 5:3; 사 1:20), ‘혀’는 ‘말’(렘 18:18; 욥 6:20), ‘분노’는 ‘심판’(미 7:9; 롬 1:18),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에서 말씀하는 것’을 가리킨다(롬 3:19; 7:17). 이 예들은 P. W. Macky, *The Centrality of Metaphors to Biblical thought: A Method for Interpreting the Bible* (Lewiston, N.Y.: E. Mellen Press, 1990), 40에서 왔으며, 우리는 왕권을 가리키는 먼류관(욥 19:9; 시 21:3), 천사를 가리키는 하늘(시 19:1)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 14) “한국이 축구에서 이겼다”는 한국 축구팀이 이겼다는 뜻이다. 별칭거에 따르면, “환유는 두 개의 관련된 명사로 교환이 이루어지지만, 제유는 두 개의 연관된 개념(ideas)으로 교환되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E. W. Bullinger, *Figures of Speech Used in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1988), 613.
- 15) 김동혁, “에스겔 비유의 알레고리적 연습,” 『Canon&Culture』 15 (2014), 33.

되는 사물의 의미가 달라진다. 예로서, 사자(lion)가 그리스도를 비유할 때는 사자의 힘과 위엄을 부각하지만(계 5:5), 사단을 비유할 때는 그의 잔혹성을 가리킨다(벧전 5:8).

1.3. 은유(隱喩, metaphor)

비유의 표현이 명시적인 직유와 달리 은유(隱喩, metaphor)는 암시적이다.¹⁶⁾ 즉, 은유는 비교되는 두 개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유사성(similarity, resemblance)에 근거하여, 원 관념(A)을 보조 관념(B)과 일치시킴으로써(equation), 보조 관념(B)의 속성을 취하는 비유법(figure)이다. 예로서, 주님이 ‘목자(시 23:1), ‘용사(출 15:3)라고 할 때, 목자의 보호와 용사의 용맹과 지략이라는 중심 속성과 특성을 가져 오는 방식이다. 매키(Macky)에 따르면 “은유란 한 주제를 유추(analogy)로 연결되는 상징으로 말하는 방식이다.”¹⁷⁾ 좀 더 확대하여 말하자면, 은유란 “하나의 사상(idea), 이미지(image), 혹은 상징(symbol)을 그와 언어적 관련성을 갖는 사상, 이미지, 상징으로 압축하여 그 함의의 생생함(vividness)과¹⁸⁾ 복잡성(complexity)으로 표현하는 비유법이다.”¹⁹⁾

알레고리는 기본적으로 직유적이라기보다 은유적이지만, 은유는 비교가 되는 하나의 실재(A)가 다른 실재(B)로 묘사되는 반면, 알레고리는 일대일(1:1)의 유추를 넘어 하나의 이야기로서 그 안에 등장하는 개체들이 다양한 실체를 가리킬 수 있으므로, ‘확장된 은유(prolonged metaphor)’²⁰⁾ 혹은 ‘연속적인 은유(continued metaphor)’라고²¹⁾ 할 수 있다.

16) 은유는 헬라어(Μεταφορά)에서 ‘전달, 이동, 이월’(transference)을 뜻한다.

17) Macky, *The Centrality of metaphors*, 56.

18) 은유의 생명력은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는데 있다”(Bache, 164; Macky, 43).

19) G. Whalley, “Metaphor,”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490.

20) 조성식 편, 『영어학사전』 (서울: 新雅社, 1990), 918.

21) Bullinger, *Figures of Speech*, 748.

1.4. 비유(譬喩, parable)

어휘적 차원의 비유법에서 두 대상이 비교되고 치환되는 환유, 직유, 은유를 넘어 이야기 차원의 비유법으로는 비유와 우화가 있다. 먼저 비유(比喩)로서 한자가 다른 비유(譬喩, parable)는²²⁾ 70인역에서 히브리어 מִּשְׁלָּה를 번역할 때 사용되며, 구약에서는 (1) 조롱 투의 연설(신 27:37; 미 24; 함 2:6), (2) 격언(왕상 10:12; 시 48:5)의 의미로 나온다.²³⁾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예수의 비유에 사용되고, 비교를 통하여 감추어진 의미(hidden meaning)을 드러내며, 지시어와 지시물이 모든 세부사항에 있어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 대상이 명시적이므로 ‘반복된 직유’(repeated simile) 혹은 ‘지속적인 직유’(continued simile)라고 할 수 있다.²⁴⁾ 이상훈은 직유가 ‘길어진 것’(extended simile)이 비유(parable)이므로, 비유 해석은 풍유적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자아 선언’(I am) 모두를 알레고리로 본다.²⁵⁾ 특히 “나는 참 포도나무” 비유(요 15:1-8)를 알레고리로 보고 이 안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할 이유, 가치, 조건, 성격, 목적,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논증한다.

그렇지만, 비유(譬喩)는 이야기로서 감추어진 세계나 교훈을 더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이므로(마 13:10-17) 알레고리와 밀접한 유사성을 갖지만, 알레고리는 그 기본 성격에 있어서 은유에 훨씬 더 가까우며, ‘확대된 은유’(extended metaphor)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유는 이야기 전체가 하나의 중심 교훈을 제시하는 반면 후자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²⁶⁾

22) 헬라어(parabolē)는 ‘곁에 던지다’(beside + throw)를 뜻한다.

23) T. Muraoka,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Louvain: Peeters, 2009), 524.

24) Bullinger, *Figures of Speech*, 751.

25) 이상훈, “포도나무의 알레고리,” 『기독교사상』 10:3 (1966) 113-117.

26) 김동혁, “에스겔 비유의 알레고리적 연습,” 35를 참조하라.

1.5. 우화(寓話, fable)

우화(寓話, fable)는 동물이나 식물이 의인화(personification) 되어서 사람처럼 ‘도덕적인 교훈’을 하는 문학적 장르로서,²⁷⁾ 셀스(Sells)에 따르면 ‘원시적인 알레고리’(primitive allegory)에서 나왔으며, ‘단순 알레고리’(simple allegory)이다.²⁸⁾ 셀스는 우화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그리스의 헤시오드(Hesiod)에 나오는 ‘매와 종달새’의 시(주전 8세기)와 이솝 우화(주전 6세기)를 들며, 후자는 “가장 짧고 건조한 절 속에 도덕적이거나 풍자적인 교훈을 전한다”고 본다.²⁹⁾ 성경에 우화가 있느냐에 대한 토론이 있지만, 요담의 비유(삿 9:7-21)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갈을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왕하 14:9)고 말한 비유를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요아스는 이 비유를 통해 아마샤에게 “네가 에돔을 쳐서 꾀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라는 교훈을 한다. 즉, 우화를 도덕적으로 직접 적용하고 있다(10절).

1.6. 상징(象徵, symbol)

상징과 이미지는 지시어와 지시대상의 유추가 어휘나 스토리의 레벨이 아니지만 일종의 비유법으로 볼 수 있다.³⁰⁾ 먼저 상징(象徵, symbol)

27) Todd J. Murphy, *Pocket Dictionary for the Study of Biblical Hebrew* (Downers Grove, Illinois: Inter Varsity Press, 2003), 72.

28) A. L. Sells, “Fable,”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269

29) Ibid., 269.

은³¹⁾ 한 부분을 통하여 다른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상징은 “하나의 일상적인(common) 실재가 더 신비로운 실재를 의미하거나, 표시하거나, 유추적인 통찰을 제시하는 것이다.”³²⁾ 예로서, 세속에서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빵(6:35), 빛(8:12), 목자(10:1), 포도나무(15:1)로 상징된다. 따라서 상징과 은유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르뢰르는 “한편으로는, 상징에서보다 은유에 뭔가 더 있고, 다른 면에서 은유에서보다 상징에 뭔가 더 있다”고 말한다.³³⁾ 즉, “은유는 상징에 내포된 것을 말로 드러내고, 상징을 구체적인 주어에 명백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상징은 바-언어적인 것으로서 바-언어적 실재에 뿌리를 두고, 그 실재의 신비를 더 깊은 인간 경험 속으로 이끌어 준다.”³⁴⁾ 매키에 따르면, “상징은 한 실재가 그와 유사성을 가진 다른 실재를 가리키거나 그것에 대해 통찰을 줄 수 있는 실재(대상, 질, 과정, 상태, 이미지)이다.”³⁵⁾ 물론 상징은 은유와 달리 인위성이 강하며, 사회적인 약속에 근거한 규칙성을 갖는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상징은 ‘감추어진 표식’(secret sign)으로 ‘신비’(musthron)와 동의어로 자주 사용된다. 즉, 요한이 본 ‘일곱 별’은 교회의 상징으로 비밀스러운 표식(musthron)이며(계 1:20), 바빌론은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 나라에 대한 은밀한 상징으로서 비밀의 표식

30) 최근 상징적 해석으로, 이한영, “자연으로 읽는 신학(8): 산의 상징적 해석 -주역 8괘 ‘간’(艮)의 패상(卦象) 풀이(2),” 『기독교사상』 659 (2013), 122-131; 황창기, “성경적 상징주의의 해석원칙,” 『진리와 학문의 세계』 5 (2001), 7-11.

31) 상징(symbol)이란 단어는 헬라어(symbolon)에서 ‘함께 던지다’를 뜻한다.

32) Macky, *The Centrality of metaphors*, 54.

33) P. Ricoeur, *The Rule of Metaphor: Multi-Disciplinary Studies of the Creation of Meaning in Languag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7), 69; Macky, *The Centrality of Metaphors*, 54에서 재인용. 장경, “폴리뢰르의 신화읽기와 해석학적 상상력-신화 속에 나타난 거룩함과 더러움의 상징 그리고 은유,” 『종교와 문화 연구』 5 (2003), 133-148을 참조하라.

34) I. G. Barbour, *Myths, Models and Paradigms: a Comparative Study in Science and Religion* (New York: Harper and Row, 1974), 6-7; Macky, *The Centrality of metaphors*, 54에서 재인용.

35) Macky, *The Centrality of Metaphors*, 56. 한문에서 수미(秀眉)는 노인의 긴 눈썹을 말하며 장수하는 모습을 가리킨다.

(musthriion)이다(계 17:5, 7).³⁶⁾ 구약성경에서 창세기의 첫 장에 나오는 뱀(창 3:1)은 신약성경의 계시록에서 용의 이미지로 나오며 교회를 핍박하는 악과 사단의 권세를 상징한다(계 12:3-17; 20:2). 동양에서는 이것을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암유(暗喻)라고 한다.³⁷⁾

상징과 알레고리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비유법이다. 그러나 상징은 하나의 인위적인 이미지로 표현되는 반면 알레고리는 복합적인 상호 연관성을 갖는 스토리라는 점에서 둘은 구별된다.

1.7. 이미지(心象, 映像, image)

프라이(Frye)는 이미지(image)에 대하여 “문학적인 용법에서 언어로 마음 속에서 만든 그림”이며, 만약 독자들이 “이미지를 표현하는 어휘나 진술을 경험한 것이라면 실제적인 인식(physical perceptions)이나 감각적인 느낌(sense impression)을 줄 수 있다”고 정의한다.³⁸⁾ 왓슨(Watson)에 따르면 “이미지란 어떤 유사성이나 유추를 표현하는 비유법(figure of speech)이며, 대부분 은유적이다”고 말한다.³⁹⁾ 그는 이미지의 두 형태로서 은유와 직유를 제시한다. 이학준은 이미지를 서술적 이미지와 비유적 이미지로 나누며, 후자는 직유, 은유, 상징, 우화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본다. 이미지는 은유와 상징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지는 은유보다 비교대상의 속성에 있어서 자유로우므로 은유가 아닐 수도 있고 창조도 가능하다. 또한 이미지는 상징의 규칙성, 사회성, 인위성보다는 훨씬 자유롭다.⁴⁰⁾

36) 김재성, “요한복음의 상징들에 나타난 대극의 통합-C.G. 융의 해석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151 (2010), 35-72을 참조하라.

37) 적양(赤楊)은 홍수전의 태평천국에 대한 암유이다(指洪秀全和楊秀清, 太平天國).

38) N. Frye, “Imagery,”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364.

39) Wilfred G. E. Watson, *Classical Hebrew Poetry: a Guide to its Techniques* (Sheffield: JSOT Press, 1986), 251.

40) 전용근, “예수의 비유에 나타난 목자와 양(염소)의 이미지 연구,” 『Canon&Culture』 14 (2013), 195-220; 박지은, “타자화 된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아가의 몸 이미지

성경에서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리위야단은 뱀과 용의 이미지로 나타난다(사 27:1; 욥 3:8).⁴¹⁾ 이미지와 알레고리가 둘 다 은유적 성격을 띠지만, 이미지는 왓슨(Watson)이 말한 바와 같이 (1)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성과 느낌을 불러 일으켜야 하며, (2)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지녀야 하며, (3) 새로울수록 효과적이며, 오래된 것은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⁴²⁾ 이와 대조적으로 알레고리는 명백한 것으로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둘은 구별된다.

1.8. 알레고리(風喻=諷諭, Allegory)

알레고리는 먼저 우리말 번역이 어렵다. 이 단어는 고대 헬라어 문헌에는 여러 번 나타나지만, 신약성경에서는 명사형으로 갈라디아서 4:24(atina estin allhgoroumena)에서 단 한 번 나타나고 있다. 이 단어에 대하여 우리말 성경 주요 번역들과 일본어 번역들(JAS, KOG)은 모두 ‘비유(比喩)’로 번역하나, 중국어·한문 성경은 ‘비유로 말하는 법’(比方的說法, CCV), ‘비방’(比方, CU5),⁴³⁾ ‘寓意的說法’(CNV5)으로 제시한다.⁴⁴⁾ 여기서 CNV5의 ‘우의’(寓意)라는 번역이 독특하다. 이 단어는 “어떤 사물에 가탁(假託)하여 어떤 뜻을 은연중에 비춘다”는 뜻이며, 함께 사용되는 우언(寓言)은 “어떤 사물에 비견하여 의견이나 교훈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말”이다(한어대사전).⁴⁵⁾

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49 (2013), 152-177.

41) 김정우, “구약성서에 나타난 신화적 짐승 리위야단, 라합, 용의 영상에 대한 번역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5 (1999), 7-23.

42) Watson, *Classical Hebrew Poetry*, 251-254.

43) 『한어대사전』에서 비방(比方)이란 ①比擬 ②類似, 相似 ③比較, 對照 ④順乎其道 ⑤猶譬如舉例說明時的發端語 ⑥表示假如的意思用于委婉其辭의場合를 뜻한다.

44) 영어, 독일어, 불어 성경에서는 ‘알레고리’(allegory, KJV, NRS, NET, TOB), ‘알레고리로 말하다’(allegorically speaking, NAS), ‘알레고리적으로 해석된다’(interpreted allegorically, ESV), ‘비유적으로 취하다’(taken figuratively, NIV), ‘sens plus profond’(BFC), ‘etwas anderes’(ZUR), 히브리어로는 לְפָנִים(DLZ, HNT)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알레고리’는 ‘우화(寓話)로⁴⁶⁾ ‘알레고리적 해석’은 ‘寓意’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화’는 이솝의 우화에서처럼, 역사성이 없는 이야기라는 일반적인 인식 때문에, 우리 말 사전에서는 알레고리를 주로 ‘풍유(風喻=諷諭)로 번역하였으며, 그 해석법을 ‘풍유법(諷諭法) 혹은 ‘영해’(spiritual meaning)로 불렀다.⁴⁷⁾ 우의(寓意)는 뜻으로 본 관점이나, 풍유(風喻)는 장르와 비유와 연관된 문학적 기법으로 보는 것이므로 성경해석에서 알레고리에 대한 대응어로 좀 더 적합해 보인다.

풍유(風喻=諷諭), 즉 알레고리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바꾸어 표현하는 일로서 그 본질은 은유의 확대 내지 연속(prolonged metaphor)이라고 할 수 있다”(영어학사전). 또한 알레고리는 마치 다니엘서의 네 왕국이 때로는 신상으로, 때로는 짐승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의인화’(personification)와 도덕적·영적 교훈을 내포하고 있다. 도덕적인 알레고리들은 교훈(instruction)과 즐거움(entertainment)을 동시에 제공한다. 우리의 민요 가운데 ‘시집살이’는 흥미로운 알레고리로 구성되어 있다.⁴⁸⁾ 시인은 다양한 새들의 은유를 확장하여 가족 관계 속에서 가장 난처하고 어려운 아내의 입장을 알레고리로 다듬어 내고 있다.

요약하자면, 알레고리는 비유적인 유추(analogy)에 근거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를 창출하는 환유(metonymy), 직유(simile), 은유(metaphor), 비

45) 『한어대사전』, “文學作品的一種體裁 用假托的故事或自然物的擬人手法說明某個道理. 常帶有勸戒 教育的性質 如我國古代諸子百家著作中的寓言.”

46) 한문에서 ‘화(話)’는 ‘말’도 되지만, ‘이야기, 담화’를 뜻한다. 참조, 說話, 話題, 話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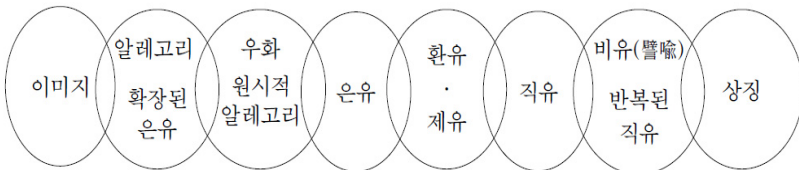
47) 여기서 ‘풍(諷)’이란 단어는 말씀(言)과 바람(風)의 합성어이므로 “바람처럼 말하다”란 뜻에서 “외워서 노래 부르다”와 “넌지시 비치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었다. 여기에서 많은 파생어가 발생하였으며, 풍자(諷刺=風刺), 풍악(음악), 풍격(인품, 인격), 풍간(諷諫, 넌지시 간함) 등이 나왔다. 갑골문에서 ‘풍(風)은 돛의 象形과 봉황의 상형의 두 가지가 있다. 바람을 받는 돛에서, 또 바람처럼 자유로운 봉황새에서 ‘바람’의 뜻을 나타내었다.

48) “시아버지 호랑 새요 시어머니 꾸중 새요, 동서 하나 할림 새요 시누 하나 뽕죽 새요, 시아지비 뽕죽 새요 남편 하나 미련 새요, 자식 하난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썩는 썰세.”

유(parable), 우화(fable), 상징(symbol), 이미지(image) 등과 개념이 중첩되면서도 구별된다.⁴⁹⁾ 이들 중 알레고리는 가장 탁월한 비유법(par excellence)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첫 세 가지 비유법인 환유, 직유, 은유는 두 대상 사이의 관계를 일차원적 관점에서 제시하지만, 알레고리는 스토리로서 삼차원적 관점을 갖는다. 또한 환유, 직유, 은유 중 은유가 가장 탁월한 데, 알레고리는 ‘확장된 은유’이므로 더 탁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알레고리는 ‘확장된 은유’로서 ‘반복된 직유’인 비유(譬喩)보다 더 고급이며 창의적이다. 우화는 원시적 알레고리 혹은 단순 알레고리로서 두 대상의 비교가 상당히 명시적이라는 점에서 암시성을 가진 알레고리 자체보다 약하다. 상징과 이미지도 강력한 비유법 중 하나이지만, 그 안에는 스토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알레고리 만큼 구체성이 없고 즐거움도 주지 못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알레고리는 두 대상의 일치에 있어서 체계성(scheme)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고급한 은유적 스토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비유적 방식들의 관계를 도표화 한다면 다음과 같다(도표 1).

〈도표 1〉



49) 좀 더 확대하여 말하자면, 역설(irony), 풍자(satire), 수수께끼(enigma), 의인법(personification) 등과도 유사성과 차이점을 함께 갖는다.

2. 알레고리적 해석법(allegorical interpretation)과 모형론(typology)의 관계성

2.1. 신약성경에 나오는 알레고리와 모형의 관련성

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알레고리(風喻)는 전반적으로 비유법(比喩法)들과 연관된 여러 범주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성경해석에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알레고리적 해석법과 쌍벽을 이룬 예표론(豫表論) 혹은 모형론(模型論)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히브리서 9:9은 우리 토론의 출발점으로 적합해 보인다. 본문은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parabolh)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개역)로 번역된다. 『개역』에서 ‘비유’로 번역한 단어(parabolh)는 다른 여러 번역들에서 상징(symbol, 표준, 공동, NAS, TOB), 상징적(symbolic, ESV), 比喩(JAS, KOG, ESV, ZUR), figure(KJV), illustration(NIV), une image(BFC), 比喩(DLZ)로 번역되나, 중국어 성경에서는 表徵(CCV), 表樣(CU5),⁵⁰⁾ 預表(CNV5)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첫 언약의 장막(1-10절)과 그리스도가 새언약의 중보자로 만드신 ‘손으로 짓지 않은 온전한 장막(11-22절)을 대비하고 있으므로, 전자(땅의 장막)는 후자(하늘 성막)의 ‘모형’이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어서 결론적으로 지상의 성소를 하늘 성소의 ‘모형’(upodeigma)이라고 말한다(23절, copies, ESV, NAS, NIV, RSV, BFC, ZUR). 즉, 하늘의 성소는 진정한 원형이며, 지상 성소는 모형이다. ‘모형’으로 번역된 이 단어(upodeigma)는 신약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예수처럼 우리가 따라야 할 본(本), 모범(요 13:15)으로, 부정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피해야 할 본(本), 모델(벧후 2:6)로 나온다.⁵¹⁾

50) 표양(表樣)은 현대 중국어에서 감정을 표출하면서 칭찬할 때 많이 사용된다.

특히 히브리서 8:5에서는 ‘모형’(upodeigma)과 ‘그림자’(skia)가 함께 나오면서 모세의 장막과 하늘의 성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사용된 ‘모형’(upodeigma)은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인 ‘tupoj’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신약성경에서 긍정적으로 따를 ‘본’(롬 6:17; 빌 3:17; 살전 1:7; 살후 3:9; 딤후 2:7; 딤후 4:12), 부정적으로 피할 본보기(고전 10:6, 11), 신체적 표식(요 20:25), 형상(행 7:43), 그리고 하늘 성전의 모형대로 만들어진 증거의 장막(행 7:44),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서 아담(롬 5:14)에게 적용되어 나타난다. 하늘의 원형과 지상의 모형(tupoj)은 구약성경의 헬라이어 번역인 70인역에서도 모세의 성막(출 25:40), 이방 우상인 식굿과 기운의 별 형상(암 5:26), 편지의 형식(3마카비 3:30, o men thj epistolhj; 행 23:25 참조)으로 나온다. 따라서 모형으로 번역된 두 개의 헬라이어(tupoj, upodeigma)와 그림자(skia)는 신학적인 해석학에서 서로 동의어로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고린도전서 10:1-4에서 바울은 구약의 홍해 도하사건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며(2절), 만나를 ‘신령한 음식’으로(spiritual food, 3절),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신 것을 ‘신령한 음료’(spiritual drink)로 비유한다. 나아가 모세가 한 때 명령하여 물을 내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게 한 ‘그 반석’을 ‘그리스도’로 해석한다(4절).⁵²⁾ 바울은 이 모든 일들과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의 본’(tupoi)이라고 한다(6, 11절). 이 단락에서 바울은 알레고리적 해석과 예표(모형)적 해석을 구별하는 것 같지 않다.

따라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4:24에서 사라와 하갈을 각각 ‘시온 산’과 ‘시내 산’으로 해석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⁵³⁾ 어쩌면 바울

51) 원래 한문에서도 모형(模型)은 규범(模範), 형범(刑範), 양식(樣式), 주형(鑄型), 도범(陶範) 등에 두루 사용된다.

52) 길성남,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고전 10:1-11에 나타난 바울의 모형론 연구),” 『개혁신학과 교회』 12 (2001), 5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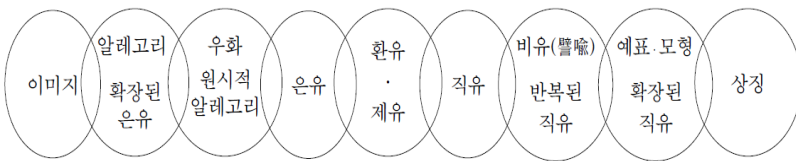
53) 전경연, “바울의 알레고리적 성서 해석,” 『신학연구』 (1990) 111-136을 참조하라.

은 ‘본’(tupoj)이란 말을 쓸 수도 있었겠지만,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갈라디아’라는 문화권에서 ‘알레고리’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 요약하자면, 구약과 신약성경 시대에는 알레고리 해석학과 모형론이 다 유추(analogy)에 근거한 비유적 해석의 방법론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교회사에서는 신약의 해석학을 확장하여 ‘모형론’(typology)이란 “사람(person), 사건(event), 사물(thing), 의식(rite)이 원래와 다른 역사적 사람(들), 사건, 사물들에서 성취된 것으로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전문 용어가 되었다.⁵⁴⁾

요약하자면, 모형론·예표론은 근본적으로 유사성이 밀접한 직유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비유(譬喩)와 그 성격이 흡사하지만, 도덕적 차원을 강조하는 비유(譬喩)와 달리 역사적이며 종말론적인 차원을 부각하므로 ‘확장된 직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표·모형을 포함한 다양한 비유적 방식들의 관계를 도표화 한다면 다음과 같다.<도표 2>

〈도표 2〉



54) Ekaterini Tsalamponi, “The Process from the Literal to the Spiritual: Origen's Figural Reading of the Scripture,” 『Canon&Culture』 15 (2014), 14.

2.2. 해석사에 나오는 알레고리적 해석과 모형론의 긴장과 상호 관련성

2.2.1.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알레고리적 해석

신약성경이 완성된 이후 교회사에서 알레고리 해석학과 모형론은 서로 다른 해석의 방법론으로 자리를 잡아 왔으며 성경해석사에서 양대 산맥으로 자리를 잡아 왔다. 물론 교회가 성경을 알레고리로 해석한 배경에는 고대 그리스의 유구한 알레고리적 해석 전통이 있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이지만, 알레고리적 해석법은 고대 그리스의 신화적 세계관을 당대의 합리적 세계관에 걸맞도록 재해석하는 방법이었다.⁵⁵⁾ 본도(Pontus)의 헤라클리데스(Heraclides, 주전 390-310년)는 “만약 호머가 알레고리적 용어(allegorical terms)로 말하지 않았다면, 그는 최악의 불경 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말했다.⁵⁶⁾ 크세노폰(Xenophon, 주전 430-354년)도 “호머와 헤시오드는 신들에게 모든 수치스러운 행동들, 즉 도둑질, 간음, 사기 등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Plato, Republic X).⁵⁷⁾ 스토아 학파(Zeno of Citium, 주전 322-266년)는 호머의 신학적 세계관과 특히 「오디세이」(Odyssey) 이야기를 당대의 지혜 추구에 어울리도록 합리적으로 재해석하는 방법으로 발전시켰다.⁵⁸⁾

55) 고대 그리스의 알레고리 해석은 레기움의 데아케네스(주전 6세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56) Joel Rosenberg, *King and kin : Political Allegory in the Hebrew Bible*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1986), 218, n. 32에서 재인용.

57) Jean Seznec, *The Survival of the Pagan Gods: The Mythological Tradition and Its Place in Renaissance Humanism and Art* (Princeton: Princeton Uni. Press, 1953), 84, n.2.; Rosenberg, *King and Kin*, 218에서 재인용.

58) 호머의 「오디세이」(Odyssey)에서,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여한 사이에 그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아내인 페닐로프 왕비에게 구혼자들이 많이 생겼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오디세우스(Odysseus)가 페닐로프의 하녀들(maidens)을 만나는 것을 백과사전학(encyclical studies, 수학, 수사학, 음악 등)을 찾는 것이며, 마침내 페닐로프(Penelope)를 만난 것을 참된 지혜(wisdom)를 찾는 것으로 해석한다. Samuel Sandmel, *Philo of Alexandria: an Introduction* (New York:

이후 알레고리적 해석법은 기독교뿐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오랜 전통으로 수용되어 왔다. 유대교에서는 헬라과 유대주의(Hellenistic Judaism)를 대표하는 알렉산드리아의 필로(ca. 주전 20~주후 45-50년)가 유대교의 지혜를 헬라인들에게 변증하기 위하여 오경을 그의 ‘장엄한 알레고리’(architectonic allegory)의 틀 속에 넣고 재해석하였다.⁵⁹⁾ 중세유대교에서는 ‘정원, 낙원’을 뜻하는 ‘PaRDeS’ 성경해석학으로 문자적-역사적 해석(Peshat), 암시적-알레고리적 해석(Remez), 도덕적-설교적 해석(Derash)과 비의적-신비적-종말론적 해석(Sod)을 발전시켰다.⁶⁰⁾ 기독교 전통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오리겐(ca. 주후 185-254)이 잠언 22:17의 70인역 독법을 따라 (1) 문자적-역사적 의미(몸), (2) 풍유적-도덕적 의미(혼), (3) 천상적 의미(영)로 나누고, 성경해석의 ‘삼중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존 카시안(d. 430)은 (1) 문자적 의미(literal), (2) 비유적 의미(allegorical), (3) 천상적 의미(anagogical, 즉 ‘uplifting’), (4) 도덕적 의미(tropological)라는 ‘사중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14세기의 리라의 니콜라스(Nicholas of Lyra)는 사중적 의미를 멋진 대구로 짜여진 경구로 만들었다.

Litera gesta docet; 문자적 의미(literal)는 (하나님과 우리 조상들이)
행하신 것을 보여준다.

quid credas allegoria. 비유적 의미(allegory)는 당신이 믿어야 할 것을.

Moralis quid agas; 도덕적 의미(moral)는 당신이 행하여야 할 것을

quo tendas anagogia. 천상적 의미(anagogy)는 당신이 가는 방향을.

Oxford Uni. Press, 1979), 20.

59) 필로에 따르면, 아담은 ‘정신’으로 ‘감각인 하와와 하나가 되며, 뱀은 ‘욕망’, 에노스는 ‘소망’, 에녹은 ‘회개’, 노아는 ‘고요함’(tranquility)으로 장엄한 구조로 해석한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지혜 추구의 여정이 시작된다. 필로는 특히 아브라함을 지혜 추구자로 보며, 백과사전적 지식을 의미하는 하갈을 통과하여 마침내 지혜인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 즉 ‘기쁨’을 낳는다고 해석하였다. Sandmel, *Philo of Alexandria*, 21.

60) Rosenberg, *King and Kin*, 13.

이 경구에 따르면 삼중 혹은 사중적 의미가 명백하게 구별되는 것 같지만, 기독교의 교부들이나 유대교의 랍비들은 모든 해석의 출발이 되는 문자적-역사적 의미를 등한시 하지 않았으며, 비유적, 도덕적, 천상적 의미가 그 위에 서야 함을 누누이 강조하였다. 어거스틴은 “형제들이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데, 성경의 독경을 들을 때에는 그 사건이 실제 일어난 것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적 기초를 파괴하지 마십시오. 그것 없이는 공중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⁶¹⁾ 또한 어거스틴은 「신국」(*Civitas Dei*)에서 알레고리가 부차적인 해석임을 명백히 하였다.⁶²⁾

어떤 이들은 낙원 전체를 풍유화 한다. 마치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의미만을 말한다. 마치 이 지상에 실제 낙원이 없었던 것처럼! 물론 낙원은 복 있는 자들의 생명을, 네 강은 네 덕인 현명함, 강인함, 절제, 정의를, 그 열매들은 경건한 자들의 습관을, 생명의 나무는 모든 선의 어머니인 지혜 자체를, 선악과는 깨어진 계명의 경험을 뜻할 수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알레고리적 해석들은 낙원 자체를 훼손하지 않고 절절하게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역사의 엄격한 진리를 믿는 한, 사실들의 상황적 내러티브로 확증할 수 있을 것이다.

어거스틴은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의미의 기초 위에 도덕적 덕성과 영성의 비유적 의미를 놓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조 기사의 모든 날에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창조의 역사성과 기사의 문학성 만을 말하지 않고, 영적인 의미를 지치지 않고 해석해

61) Sermo II (PI vol 38, col 30), E. A. Gosselin, *The King's Progress to Jerusalem: Some Interpretations of David during the Reformation Period and their Patristic and Medieval Background* (Malibu: Undena Publications, 1976), 12, 23, n. 6; Rosenberg, *King and Kin*, 219, n. 38에서 재인용.

62) St. Augustine, *The City of God* XI, 21. M. Dods, Trans. (New York: Random House, 1950), 431-432; Rosenberg, *King and Kin*, 219, n. 39에서 재인용.

나간다. 그는 만약 우리가 본문을 정밀하게 조사해 보면 ‘의도된 비유적 의미’(figurative meaning intended)를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⁶³⁾

2.2.2. 안디옥 학파의 모형론적 해석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달리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안디옥 학파에서는 모형론을 발전시켰다.⁶⁴⁾ 사실 알렉산드리아의 플라톤주의적 분위기에는 모형론이 불가능했고, 유대적 성경 해석의 전통이 확립된 안디옥에서는 하르낙이 말한 바와 같이 ‘성경해석의 연금술’⁶⁵⁾ 같은 알레고리적 해석이 불가능하였다. 안디옥 학파의 대표로 꼽힐 수 있는 도로테우스(Dorotheus), 몹슈에스테의 테오도레(Theodore of Mopsueste), 크리스소스톰(Christostome)은 모두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바울의 갈라디아서 4:22-26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것을 비판하였다. 그들은 바울이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에 대한 역사성에 근거하여 비유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역사성을 배제한 알렉산드리아파의 비유적 해석은 성경의 역사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바울은 알레

63) St. Augustine, *The City of God* XI, 340. 창조 기사에 대한 그의 알레고리적 해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주님은 감추어진 경륜에 빛을 비추사 우리의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 형체를 부여하셨고, 우리가 어려울 때 선하신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성령이) 너풀거리게 하셨다. 거대한 불신자들의 무리들을 응집하여 신자의 무리를 만들어 당신을 위한 자비의 사역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세상 물건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게까지 하셨다. 궁창에 특별한 등잔을 만드신 것은 당신의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맡긴 것이며, 영적 은사들로 엄숙한 권위를 행사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믿는 영혼에게 형체를 부여하셔서 절제하며 (self-control), 충동들이 선한 질서에 순응하게 하셨다. 그 정신은 오직 주께만 복종하고, 그 어떤 인간의 규칙도 배울 필요가 없게 하셨다. 주께서 그것을 당신의 형상대로 새롭게 하였고, 그 이성적 활동을 지성의 주권에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마치 여자가 남자에게 하듯이.”

64) 이동수, “교부시대 성경 해석학에서 모형론의 의의,” 『진리와 학문의 세계』 6 (2002), 31-46.

65) ‘성경적 연금술’(biblical alchemy)이라는 용어는 하르낙(Harnack)이 오리겐의 해석을 비판 것이다. Grant, *A Short Histor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61.

고리란 말을 사용하지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다.”⁶⁶⁾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존 크리소스톰은 “바울이 언어를 잘못 사용하여 모형(type)을 알레고리로 불렀다”는 비판을 하였다.⁶⁷⁾ 그는 계속하여 말하기를, “바울의 진의(眞意)는 역사 자체는 명백한 의미(apparent meaning)를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것(other matters)을 선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레고리이다. 그러나 무엇을 알려주는가? 현존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크리소스톰은 성경 원래의 역사적 의미가 배제된 알레고리적 해석 대신에 모형론적 해석을 제안한다.⁶⁸⁾

모형(type)이란 진리가 실현되기까지 진리라는 이름을 준다. 그러나 진리가 성취되면, 그 이름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화가는 왕을 스케치(sketch) 하지만 그것은 채색(color)을 하기 전까지는 왕이 아니다. 그리고 채색이 끝나면, 그 모형(type)은 진리(truth) 때문에 감추어지며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왕을 보라고 말하게 된다.

이것은 탁월한 비유이다. 즉, 안디옥 학파는 모형론을 통하여 역사적 의미는 의미대로 살리고, 성취된 의미까지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안디옥 학파를 대표하는 몸슈에스테의 데오도레도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순수하게 메시아적인 예언(2, 8, 45, 110편)과 역사적인 의미에 근거하여 예표적인 의미를 지닌 22편을 구별하였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알레고리적 해석과 안디옥 학파의 예표적 해석 사이에는 그 당대와 후대 교회사에서 많은 긴장이 있었지만, 우리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알렉산드리아 학파 역시 문자적 의미와 역사적 의미를 성경의 일차적 의미로 보았다는 점에서⁶⁹⁾ 최소한

66) Grant, *A Short History*, 63.

67) Ibid., 68.

68) Ibid., 68.

성경해석의 원리에서는 안디옥 학파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만든 삼중적 의미나, 이후 중세 교회가 만든 사중적 의미는 사실상 문자적-역사적 의미와 알레고리적 의미의 두 가지 의미로 귀착된다. 따라서 리라의 니콜라스(Nicholas of Lyra)가 제시한 세 번째의 도덕적 의미(Moralis)와 네 번째의 천상적 의미(anagoria)는 알레고리 안에 종속이 된다. 즉,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알레고리적 해석을 통하여 성경의 도덕적 의미와 영적-천상적 의미에 대한 여지를 만들려고 하였으며, 후자 속에 구약 성경에 대한 기독교론적 의미를 가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알레고리적 해석은 찰람푸니가 주장하듯이 단지 ‘해석의 수직적 차원’(vertical dimension)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⁶⁹⁾ 그것은 도덕적 차원의 해석으로서 ‘해석의 수평적 차원’(horizontal dimension)을 갖고 있다.

셋째로, 안디옥 학파의 예표론은 문자적-역사적 의미에 기초한 것으로서 한 본문이 후대에 성취되었다는 의미에서 ‘해석의 수평적 차원’(horizontal dimension)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표-모형’이 지상의 실재를 통하여 천상의 실재를 가리킨다는 차원에서 ‘해석의 수직적 차원’(vertical dimension)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예로, 성막(출 25:9)과 성전(대상 28:12)은 수직적 차원에서 그 원형(prototype)인 하늘 성전의 모형이며 수평적 차원에서 그 대형(anti-type)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다(요 1:14).

넷째로, 안디옥 학파가 예표론과 모형론에 근거하여 알레고리적 해석을 표면적으로는 강하게 부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그들도 알레고리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크리소스톰이 풍유적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는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에 대하여 물은 “차갑고 약하며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의지”를, 포도주는 “변화되어 더 이상 변덕스럽지 않고 견고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

69) Tsalamponi, “Origen’s Figural Reading of the Scripture,” 12.

70) Ibid., 15.

들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았다.⁷¹⁾ 몸슈에스테의 테오도레도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하늘의 이슬'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땅의 기름짐'은 인성을 묘사한다고 보았다.⁷²⁾ 즉, 성경의 도덕적이며, 신학적인 차원은 알레고리 없이 제시되기 어려운 차원이 있다.

3.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가능성

3.1.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한 반성

알레고리 해석학이 종교개혁의 성서해석학과 역사비평학에서 추방된 이유는 주로 그 인위성(*artificiality*), 자의성(*arbitrariness*), 비역사성(*ahistoricity*),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부적합성'(*illegitimacy*)에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볼트만(*Bultmann*)보다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해 거부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학자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는 신약의 구약 예언에 대한 예표론적 해석조차 주석(*exegeisis*)이라기보다는 주입(*eisegesis*)이며, 인위적이고(*artificial*), 억지를 부리며(*forced*),⁷³⁾ 불가능한 해석이며(*impossible*),⁷⁴⁾ 원래의 의미와 상반된다(*contrary*)고 본다.⁷⁵⁾ 볼트만은 신약이 구약을 알레고리로 해석

71) Moises Silva, *Has the Church Misread the Bible? The History of Interpretation in the Light of Current Issues* (Grand Rapids: Academie Books, 1987); 『교회는 성경을 오석해 왔는가』, 심상법 역, (솔로몬: 2004), 90.

72) Ibid.

73) R. Bultmann, "Prophecy and Fulfillment," James C. G. Greig, trans., Claus Westermann, ed., *Essays on Old Testament hermeneutics* (Atlanta: John Knox Press, 1963), 51

74) Ibid., 52.

75) Ibid., 53.

하는 한 가지 예로서,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것(신 25:4)을 설교자 사례비로 해석하는 것을 든다(고전 9:9). 그는 교부들의 알레고리 해석은 한마디로 기괴하다(grotesque)고 평하고 있다.⁷⁶⁾

폰 라트(von Rad)는 볼트만보다 조금 부드럽게 알레고리 해석이 “본문의 단어까지 훨씬 더 경직되게 결부되었고(rigid attachment), 때로는 영해를 함에 있어서 고삐 풀린 망아지(unbridled freedom)처럼 사용되었다”고 본다.⁷⁷⁾ 그러나 예표론은 “단어나 문자에 메이지 않고 역사적 의미에 결부되어 있으며, 영적인 진리보다 사실에 메여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⁷⁸⁾ 즉, 예표론은 알레고리의 인위성과 달리 사실성을 가지고, 비역사성과 달리 역사성을 가지며, 초월성과 달리 시간성을 가진다. 그는 구약 성경 안에 나오는 예표론 속에서 시간적 일치성(temporal correspondence)을 발견한다.⁷⁹⁾ 즉 태고의 사건은 종말론적 사건의 모형이 된다. 나아가 그는 구약성경 속에서 이미 ‘무언의 역사적 사실들’(dumb facts of history)이 예언적(prophetic)이 되어, 새롭고도 더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 행위가 장차 일어날 것에 대한 원형(prototype)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본다. 즉, 구약성경은 자체의 ‘케뤼그마적 의도’(kerygmatic intention)를 가지고, 종말론적인 방향을 향하여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⁸⁰⁾ 폰 라트는 구약 역사의 모든 곳에 “신약성경의 그리스도-사건의 예시(豫示, prefiguration)가 나온다”는 새로운 인식에 근거하여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스케치’(sketch), ‘그림자’(shadow), ‘전조’(foreshadow), 예시(豫示, prefigurement)로 본다.⁸¹⁾ 물론, 그는 예표론이 주석을 벗어나서는 안되며, 역사비평학과 예리하게 분리되어서도

76) 예로서, 라합의 붉은 줄을 십자가의 보혈로 해석하는 『1 클레멘트』 17:8. Ibid., 55.

77) G. Von Rad, “Typ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John Bright, trans., Claus Westermann, ed., *Essays on Old Testament hermeneutics*, 21.

78) Ibid., 21.

79) Ibid., 20.

80) Ibid., 34.

81) Ibid., 37.

안됨을 강조한다. 그러나 유대적 해석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예표론적 해석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⁸²⁾

아이크로트(Eichrodt)는 폰 라트와 함께 예표론은 본문의 역사적 가치(historical value)를 중시하였지만, 알레고리는 역사적 가치를 저하시켰으며(depreciation), 무관심하고 공격적(offensive)이기까지 하였다고 말한다.⁸³⁾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증거에 있어서는 이 두 해석법 사이에 구별이 명료하지 않다고 본다. 예표론이나 알레고리는 둘 다 권면과 경고(paraenesis)라는 현재의 공동체를 향한 도덕적 차원에 사용될 때는 의미가 많은 경우 겹친다. 아이크로트는 역사비평적 해석이 구약성경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선포적 해석의 여지를 없애 버린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⁸⁴⁾ 그는 “예표론이 엄격한 의미에서 신적 활동의 연속성과 목적성이라는 핵심 포인트를 강조한다”고 보며,⁸⁵⁾ “진정한 예표는 단지 비-본질적인 것들의 외부적 유사성에 관심을 갖지 않으며, 구약의 역사 사실들의 핵심적인 것들과 신약 구원의 근본적 특징의 본질적 일치성을 다룬다”는 점에서 예표론을 옹호한다.⁸⁶⁾

요약하자면, 신약성경에서 모형, 예표, 상징, 비유, 알레고리 등으로 사용된 단어들과 해석법 중에서, 비평학자들은 알레고리와 그 해석법에 대해서는 매우 비평적인 입장을 견지하지만, 다른 용어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구약의 선포적 차원과 신약 신학과의 연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82) 그는 놀랍게도 예표론을 교육적 규범(pedagogical norm)에 속박해서는 안 되며, “성령의 자유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Ibid., 38.

83) W. Eichrodt, “Is Typological Exegesis An Appropriate Method?”, James Barr, trans., Claus Westermann, ed., *Essays on Old Testament hermeneutics*, 228.

84) Ibid., 235.

85) Ibid., 240.

86) Ibid., 244.

3.2.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우리가 문학적 형식으로 알레고리에 대하여 민감하고 동시에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하여 유보적이지만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성경, 특히 구약성경이 알레고리를 하나의 중요한 비유법의 양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로젠버거(Rosenberg)는 구약에 나오는 알레고리들로서 에덴 동산의 말하는 뱀(창 3:1-5), 바로의 일곱 암소와 일곱 이삭의 꿈(창 41:25-28), 헤스본의 모압 정복에 대한 시(민 21:27-28), 요담의 나무들 비유(삿 9:6-15), 에스겔의 독수리 비유(17:1-9), 벨사살에게 나타난 벽서(단 5:24-28) 등을 들고 있다.⁸⁷⁾ 덜러서(Dulleser)는 에스겔서 안에서 포도나무 알레고리(15, 17장; 19:10-14), 암사자와 그 새끼 알레고리(19:1-9),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의 알레고리(34장), 창녀의 알레고리(16, 23장), 두로의 상선 알레고리(27장), 우주적인 백향목 알레고리(31장), 바다의 괴물 알레고리(29:1-6a; 32:1-16)를 찾아낸다.⁸⁸⁾

로젠버거(Rosenberg)와 덜러서(Dulleser)가 설정한 알레고리의 범위에 대하여 다른 견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은유가 이야기 차원으로 확대된 것을 알레고리로 본다면 훨씬 더 풍부한 알레고리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나단의 비유(삼하 12:1-4)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이 모든 비유들에는 식물, 동물, 사물(불, 글, 배), 사람 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모든 비유들은 당대의 문학 형식을 빌어서 도덕, 윤리, 정치, 종교에 대한 교훈을 숨겨진 의미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서, 요담의 비유(삿 9:6-15)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일반적인 나무들인 테이트 야자나무(8절), 무화과나무(10절), 포도나무(13

87) Joel Rosenberg, *King and Kin: Political Allegory in the Hebrew Bibl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6).

88) James Arthur Dulleser, *The Metaphorical Narratives in the book of Ezekiel* (Lewiston, N.Y.: Edwin Mellen Press, 2006).

절)와 마지막으로 가시나무가 등장한다(14절). 온 세상 나라들의 최고의 정치적 행사가 왕을 뽑는 것이므로 나무들도 왕을 뽑으려고 하는데, 두 부류의 나무가 대비된다. 나무들이 볼 때 왕으로서 충분한 자격과 가문과 덕성과 능력을 갖춘 첫 세 나무들은 자신이 할 일이 바쁘고, 자신이 하는 일이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왕권을 거절한다. 데이트 야자나무는 그의 열매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함’을 안다(9절). 무화과나무는 그의 열매가 달콤하고 잘 생긴 것을 안다(11절). 포도나무는 자신의 포도주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함’을 안다(13절). 그들은 모두 한결 같이 자신의 소중한 것은 버릴 수 없으며, 왕이 된다는 것이 ‘우쭐대는 것’임을 안다(9, 11, 13절). 모든 나무들이 결국 찾은 자는 가시나무였다(14절).

가시나무는 그의 말로서 그의 본색을 드러낸다. ‘만일 진실로 너희가 나에게 기름 붓기를 원한다면’(אם באמת אתם משיחים אותי)에서 ‘만일’과 ‘진실로’가 모순적 어법으로 강조되고 있다(15a). 가시나무는 왕이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므로 ‘만일’이란 가정으로 한 자락을 깔며, 자신이 왕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진실로’ 그를 왕으로 원하는 자들에게 있음을 강조함으로써⁸⁹⁾ 그의 왕권 남용의 가능성에 대한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또한 그는 자신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그들 안에(בְּלִבָּי) 피하라’고 명령한다(15절상).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왕권은 본질적으로 ‘그들’처럼 보호를 제공한다(시 91:1). 사실 가시나무는 접근 자체가 어려워 그들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 그는 귀결절에서 절대적으로 사용된 부정어인 ‘그렇지 아니하면’(אִם־אֵין)⁹⁰⁾으로 시작하여 “불은 가시나무

89) 주용-무라오카는 분사와 인칭대명사로 구성된 절에서 ‘분사+대명사’ 순서는 무표적(unmarked)이지만, 제 3의 요소가 첫 칸에 나와 강조될 때는 분사와 대명사의 순서가 바뀔을 예증한다. Paul Joüon-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06), 『주용-무라오카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664-664. 이후로 JMK로 표기함. JMK§154fe. 따라서 여기서는 제 3의 요소인 ‘만약 참으로’(אִם־אֵין)가 강조되고 있다.

90) JMK§160j.

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라(지시형)”는 공포통치의 선포로 마친다(왕하 14:9 참조).

마틴 부버는 요담의 비유에 대하여 “세계의 문학에서 가장 강력한 반-왕조적 작품”이라고 말했다.⁹¹⁾ 이 작품 속에는 좁게는 두 종류의 나무의 상징(symbolism), 아이러니(irony), 풍자(satire), 지혜(wisdom)를 통한 도덕적인 가르침(moral teaching)이 있다.⁹²⁾ 요담은 이 비유를 그의 실존 속에서 정치적인 ‘저주’(咒語)로 사용하고 있다(삿 9:57). 현재의 본문 안에 ‘마샬’(מַשָּׁל)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 ‘우화’(apologue, fable)로 볼 수 있고,⁹³⁾ 넓게는 탁월한 알레고리로도 볼 수도 있다.

구약과 신약 속에 문학작품으로서 비유, 우화, 알레고리들이 등장하는 것은 그 당대의 문학적 관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동물과 식물의 우화 혹은 알레고리는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널리 있었다.⁹⁴⁾ 무엇보다도 알레고리적 성격을 띤 우화(寓話)는 동양적 사유에서 매우 중요한 형식임을 지나쳐서는 안될 것 같다. 예로서, 장자(莊子)는 호접몽(胡蝶夢)의 우화로써 인식론의 근원적 진리를 전하며, 대붕(大鵬)의 알레고리로써 소요(逍遙)의 도(道)를 탁월하게 전하고 있다. 또한 『시경』의 제 1편인 「관雉」(關雎)에⁹⁵⁾ 대해서도 공자(孔子)의 도덕적 해석으로부터⁹⁶⁾ 후대의 주자(朱子)를 비롯한 송대의 성리학자들은

91) M. Buber, *Koenigtum Gottes* (Heidelberg, 19563), 24; J. Alberto Soggin, *Judges: a Commentary*, John Bowden, trans., (London: SCM Press, 1987), 117에서 재인용.

92) ‘moral of the apoglogue’, Soggin, *Judges*, 175.

93) von Rad, *OT Theology*, 1; 59; Soggin, ‘apologue,’ 171; ‘fable,’ 175.

94) W. G. Lambert, *Babylonian Wisdom Literature* (Oxford: Clarendon Press, 1960), 150ff.

95) 제 1장. 關關雎鳩，在河之洲，窈窕淑女，君子好逑。

제 2장. 參差荇菜，左右流之，窈窕淑女，寤寐求之。

求之不得，寤寐思服，悠哉悠哉，輾轉反側。

제 3장. 參差荇菜，左右采之，窈窕淑女，琴瑟友之。

參差荇菜，左右芼之，窈窕淑女，鐘鼓樂之。

96)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관저(關雎)는 즐겁되 지나치지 않고(樂而不淫) 슬프되

부부의 덕과 군신의 윤리에 대한 도덕적 알레고리로 해석해 왔으며 이것은 왕조의 이념이 되었다.⁹⁷⁾ 그렇다면, 우리는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해서도 다소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나가는 말

성경해석사를 크게 비평 전(pre-critical) 해석, 비평적(critical) 해석, 비평 후(post-critical) 해석으로 나눈다면, 알레고리적 해석과 모형론적 해석은 우리 시대에 더 이상 효용적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알레고리적 해석이나 모형론적 해석이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가진 것은, 인간의 모든 언어와 인식에 있어서 비유와 은유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즉, 인간의 모든 언어는 은유적이다.

나아가 알레고리적 해석을 시도하는 대부분의 텍스트들은 종교적인 경전(canon)으로서, 세계관이 달라질 때 시대의 문맥(context)에 어울리는 재해석을 요청하는 텍스트(text)이다. 우리 시대의 성경해석자들은 비평학적인 해석과 문법적-역사적-신학적 해석학으로 단련을 받았으므로 은유의 세계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알레고리와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하여 문을 열 수 있다. 또한 알레고리적 해석과 모형론적 해석의 연장선에서 ‘정경적 해석학’(canonical approach)이 요청되고 다듬어진 것을 고려할 때, 현대의 해석학은 고대의 해석 방식들과 더 긴밀한 대화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상하지 않았다(哀而不傷)” 하였으니, “덕(德)이 관저 새와 같아 정이 돈독하면서도 분별이 있다면 후비(后妃)의 성정의 올바름을 보여준다”.

- 97) 모씨 서문(毛序)에는 “선왕(先王)이 이 시로써 부부를 다스리고 효경(孝敬)을 이루고 인륜(人倫)을 후하게 하고 교화(教化)를 아름답게 하고 풍속(風俗)을 바꾸었다”고 주석을 한다.

<주제어>

알레고리, 은유, 비유, 예표-모형(론), 오리겐, 해석학.

<Key Words>

Allegory, metaphor, figure, type, typology, Origen, hermeneutics.

* 접수일 2014년 8월 28일, 수정일 2014년 8월 30일, 게재 확정일 2014년 9월 1일

참고문헌

- 길성남,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고전 10:1-11에 나타난 바울의 모형론 연구)”, 『개혁신학과 교회』 12 (2001), 54-81.
- 김동혁, “에스겔 비유의 알레고리적 연습” 『Canon&Culture』 15 (2014), 31-50.
- 김재성, “요한복음의 상징들에 나타난 대극의 통합-C.G.용의 해석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151 (2010), 35-72.
- 김정우, “구약성서에 나타난 신화적 짐승 리워야단, 라합, 용의 영상에 대한 번역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5 (1999), 7-23.
- 김정우, “평양대부흥운동의 성경 해석 - 통전적 융합의 해석학”, 『Canon&Culture』 1:2 (2007), 75-111.
- 박지은, “타자화 된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아가의 몸 이미지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49 (2013), 152-177.
- 박창환, “구원사의 알레고리-마태 22:1-14”, 『성경연구』 131 (2005), 14-27.
- 서정열, “나다니엘 호손의 <목사의 검은 베일>의 베일 벗기기-알레고리와 상징과 역사 읽기-”, 『신학과 문화』 14 (2005), 325-끝.
- 양신혜, “칼뱅의 영적 해석-문자적 의미와 알레고리적 해석의 긴장 사이에 서”, 『장신논단』 38 (2010), 119-139.
- 엄진섭, “루터의 알레고리 비판”, 『신학과 신앙』 14 (2003), 167-208.
- 이동수, “교부시대 성경 해석학에서 모형론의 의의”, 『진리와 학문의 세계』 6 (2002), 31-46.
- 이상훈, “포도나무의 알레고리”, 『기독교사상』 10:3 (1966), 113-117.
- 이한영, “자연으로 읽는 신학(8): 산의 상징적 해석-주역 8괘 ‘간(艮)의 괘상(卦象) 풀이(2)’”, 『기독교사상』 659 (2013), 122-131.
- 장경, “폴리코르의 신화읽기와 해석학적 상상력-신화 속에 나타난 거룩함과 더러움의 상징 그리고 은유”, 『종교와 문화 연구』 5 (2003), 133-148.
- 전경연, “바울의 알레고리적 성서 해석”, 『신학연구』 (1990) 111-136.
- 전용근, “예수의 비유에 나타난 목자와 양(염소)의 이미지 연구”, 『Canon&Culture』 14 (2013), 195-220.

- 조성식 편, 『英語學辭典』, 서울: 新雅社, 1990.
- 최홍진, “알레고리적 성서해석 방법의 가능성”, 『신학이해』 17 (1999), 334-357.
- 황창기, “성경적 상징주의의 해석원칙”, 『진리와 학문의 세계』 5 (2001), 7-11.
- Bauer, G. L., *Entwurf einer Hermeneutik des Alten und Neuen Testaments*, Leipzig:Weygand, 1799.
- Bullinger, E. W., *Figures of Speech Used in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1988.
- Caird, E. H., *The Language and Imagery of the Bible*, Philadelphia: Westminster, 1981.
- Durlesser, James Arthur, *The Metaphorical Narratives in the book of Ezekiel*, Lewiston, N.Y.: Edwin Mellen Press, 2006.
- Grant, R. M., *A Short Histor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London: SCM Press, 1984; 『성서해석의 역사』, 이상훈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 Joüon, Paul - Muraoka, T.,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06, 『주용-무라오카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 Lambert, W. G., *Babylonian Wisdom Literature*, Oxford: Clarendon Press, 1960.
- Lewis, C. S., *The Allegory of Love: A Study in Medieval Tradition*, New York: Oxford/Galasy, 1936(reprinted 1958).
- Martel, Yann, *Life of Pi: a novel*, NewYork: Harcourt, 2010.
- Macky, Peter W., *The Centrality of metaphors to Biblical thought: a method for interpreting the Bible*, Lewiston, N.Y.: E. Mellen Press, 1990.
- Muraoka, T.,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Louvain: Peeters, 2009.
- Murphy, Todd J., *Pocket Dictionary for the Study of Biblical Hebrew*,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2003.
- Ollenburger, B. C., “Old Testament Theology before 1933,” C. Ollenburger, ed., *Old Testament Theology: Flowering and Future*, Winona Lake: Eisenbraun, 2004.
- Preminger, A., et al., eds.,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 Rosenberg, Joel, *King and Kin :Political Allegory in the Hebrew Bible*,

-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6.
- Sandmel, Samuel, *Philo of Alexandria: An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 Silva, Moises, *Has the Church Misread the Bible? The History of Interpretation in the Light of Current Issues*, Grand Rapids: Academie Books, 1987; 『교회는 성경을 오석해 왔는가』, 심상법 역, 서울: 솔로몬, 2004.
- Soggin, J. Alberto, *Judges: a Commentary*, John Bowden, trans., London: SCM Press, 1987.
- Tsalampouni, Ekaterini, "The Process from the Literal to the Spiritual: Origen's Figural Reading of the Scripture," 『Canon&Culture』 15 (2014), 5-30.
- Watson, Wilfred G.E., *Classical Hebrew Poetry: a Guide to its Techniques*, Sheffield: JSOT Press, 1986.
- Westermann, Claus, ed., *Essays on Old Testament hermeneutics*, James Luther Mays, trans., Atlanta: John Knox Press, 1963.

<초록>

“다시 보는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학”

김정우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성서학에서 알레고리와 알레고리 해석은 500여 년 전 종교개혁으로 파문(anathema)을 받았고, 20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역사비평학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따라서 이제 와서 알레고리와 그 해석법의 판도라 상자를 다시 여는 것은 시대착오일 뿐 아니라, 지난 수 세기 동안 확립한 소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해석의 기초를 허물려는 시도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미 성경해석은 문법적-문학적, 역사적-문화적, 신학적-정경적 관점에서 충분히 객관적인 해석을 담보하였으므로, 이제 비유적인 해석에 마음의 문을 열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알레고리는 문학적인 장르로서, 환유(metonymy), 직유(simile), 은유(metaphor), 비유(parable), 우화(fable), 상징(symbol), 이미지(image) 등과 개념이 중첩되면서도 구별된다. 특히 알레고리는 직유가 확대된 비유(臂喩)와 밀접한 유사성을 가지며 ‘은유가 확장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예표·모형은 기본적으로 ‘직유가 확장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알레고리와 예표·모형은 그 본질적인 성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알레고리는 성경해석에 있어서 인위성(artificiality), 자의성(arbitrariness), 비역사성(ahistoricity), 그리고 ‘부적합성’(illegitimacy)으로 비판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구약성경 자체가 수많은 알레고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알레고리적 해석은 성경의 도덕적 의미(Moralis)와 천상적 의미(anagoria)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는 해석의 적용에 속하며,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정경적 해석(canonical

approach)의 전신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모든 의사소통은 유추에 근거한 은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동양의 경전들은 탁월한 비유를 통하여 진리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은유와 은유의 확장인 알레고리에 마음의 문을 열고, 창의적인 해석을 시도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 Abstract >

Once again Looking into the Allegorical Interpretation of the Bible

Prof. Jungwoo Kim
(Chongshin University)

The Allegories and the allegorical interpretation were anathematized by the Reformation and were buried alive by the historical-critical methods. Thus, opening up anew Pandora's box of the allegorical interpretation sounds like anachronistic as well as an attempt to demolish the so-called 'assured results of the objective and scientific interpretation' of the Bible. Paradoxically, however, as the biblical interpretations have already grasped a firm security in terms of grammatical-literary, historical-cultural, and theological-canonical approaches, we are eligible to open up our mind to the world of figurative interpretations. In fact, allegory as a literary genre has a close relation with metonymy, simile, metaphor, parable, fable, symbol, type and image. Moreover, allegory has an intimate relation with metaphor, and can be defined as "an extended metaphor" in the story level. We come to realize that a type has an intimate relation with simile, and can be defined as "an extended simile" in the story level. Of course, the allegorical

interpretation has been heavily criticized in its artificiality, arbitrariness, a-historicity, and illegitimacy. However, the Old Testament is full of allegories and can be regarded as a reservoir of allegories, likewise the New Testament is full of parables and typology can be regarded as a reservoir of parables and typology. Specifically the allegorical interpretation aims at the morality and anagogical reality, and has its own unique value as the application of the biblical stories and histories. And we may regard the allegorical interpretation as the precursor of the canonical approach. As all sorts of human communications are performed fundamentally by metaphor, we are eligible to open up to allegory and to allegorical interpretation, thereby fostering our creativity and ingenuity.